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ildrearing Belief and Parental Efficacy

박 영 애 · 나 종 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

Park, Young Yae · Rha, Jong-Hay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belief and parental efficacy of women before and after childbirth. For this purpose 253 pregnant women and 256 mothers with infants under one year of age were contacted and asked to fill in a packet of survey questionnaire at their visits to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pediatrician. The questionnaire includes questions about what mothers value in childrearing,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and parental efficac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AS PC program. It was reported that comparing to mothers, pregnant women view childrearing in more ideal lights and expect their children to be more exceptional. Also working mothers reported comparatively lower parental efficacy than full-time mothers suggesting that social support system to minimize pressure coming from work for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hould be provided and the parental education methods to enhance the parental efficacy should be sought.

Key words : parental efficacy, childrearing belief, pregnancy

I. 서론

자녀출산 전후의 시기는 모든 가족에게 있어 가족의 형성기로 부부간의 적응, 다중역할 수행을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 등 새로운 발달적 과업이 많은 시기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동의 입장에서 일생 중 가장 발달과 성장이 급속하고 인생의 기틀이 형성되는 경험을 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 시기는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있

어서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

부모들은 새로운 자녀의 출산 전후시기에 자녀를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며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자칫 부모로서의 부적절감을 느끼기 쉽다. 이는 특히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약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례로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이유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자발적

Corresponding author : 나종혜(Rha, Jong-Hay)
Tel : 042) 629-7893 Fax : 042) 629-7437
E-mail : jhrha@mail.hannam.ac.kr

* 본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무 자녀 가정이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주는 적절한 정부시책이나 자녀 출산 전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부모교육 방법이 거의 없는 현실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유아를 위한 보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는 있어 왔어도 자녀출산 전후 시기의 부모의 신념이나 양육 여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임신동안이나 출산직후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들의 입장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외시 되어왔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프로그램 및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녀출산 전후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또한 자신이 부모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양육 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관련 신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 전후 여성의 부모 효능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신념과 부모 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출산 및 영아기 양육의 중요성

현대인은 부모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는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며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자녀가 생김으로써 오는 현실적인 변화를 예상해보고, 자신의 욕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욕구를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 본 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단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여 임신을 한 사람들은 다가올 출산을 기뻐하며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긴장감을 갖기도 한다.

자녀 출산과 관계되는 이 중요한 시기는 Duvall (1977)의 가족생활주기 중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이 시기는 첫 아이의 출생부터 생후 약 36개월까지의 시기로서 보통의 가족들은 이 시기 동안 약 두 명의 자녀를 갖는다. 자녀의 탄생은 결혼 생활의 많은 측면에 변화를 초래하여 공동으로 사랑할 아기를 통해 부부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며, 자녀의 성장을 통해 기쁨을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재 적응과 태어난 아기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실상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남성은 직업인, 아버지, 가사 조력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여야 하며 여성은 어머니, 아내로서, 때로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생활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아기의 출생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의 균형을 일시적으로 깨뜨리는 사건으로 부모는 아기출생 후에 가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아기와 관계는 물론 가족 내의 시부모, 부부, 다른 자녀와 식구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시기동안 가족 차원의 발달과업으로는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생활비용 충족시키기, 가사의 책임분담 재조정하기,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화시키기, 영아를 포함하는 생활유형에 적응하기, 조부모를 가족단위 속에서 조화시키기 등이 있다.

출산 이후의 적응은 임신기간 동안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경험, 미숙한

성격 특성, 낮은 교육수준, 낮은 수입,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 영아의 반응 등이 부모역할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임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보다 쉽게 적응하며 그들의 아기는 신체, 사회성, 인지 발달에서 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또한 잘 울고 불안정한 아들은 부모로 하여금 우울증과 거부감,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수동적이고 순한 아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반응을 유도해 낸다 (Thomas, & Chess, 1977).

많은 여성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육아의 미숙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취업여성들은 자녀에 대해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동시에 막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수면시간의 감소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일하면서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 결과 부부간의 대화시간도 감소하며 배우자에 대한 애정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직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여성도 상당수 있다.

2.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부모의 신념이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는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인지적인 요소의 구성체로서, 부모의 행동을 지도한다고 가정되며, 부모 자신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나아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안지영, 2000). 한편, 부모의 신념을 구성하는 인지적인 요소들은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들이 기초하며, 이러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와 갖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육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김경혜, 1993).

한편,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신념에 관한 내용에는 자녀의 발달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식,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행동 (Goodnow, 1988), 자녀 교육의 목표와 중시하는 특성과 가치 (Okagaki & Sternberg, 1993; Segal, 1985), 또는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 (Stevenson, Chen & Uttal, 1990)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양육 신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녀 교육관에 집중되어 있다. 자녀 교육관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장차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가치관으로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합되는 행동 규범과 방향 선택의 근거가 된다. 자녀 교육관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며, 지식 중심의 학업을 강조하는 성인 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들은 통계적인 양육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원영, 1983), 유아 중심적인 교육관일수록 민주,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이정희, 1986).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아동 중심적 교육관을 가질수록 과보호와 적극적 참여를 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성옥, 1994), 자녀 교육관과 실제 양육 행동은 유의한 상관 이 거의 없는 연구 결과(전인옥, 이경옥, 1999)도 있다. 또한,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본 김지신(199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양육 행동에서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를 더 하는 한편, 권위주의적 통제도 더 사용한다고 하여, 상반된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안지영, 2000).

한편, 부모의 신념은 크게는 문화에 따라, 또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계층, 직업, 그리고 아동의 성이나 연령, 출생순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양육 신념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순응성보다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Schaefer & Edgerton, 1985; 김경혜, 1993),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율성보다는 권위에 대한 순응을 더 중시하였다 (Luster & Rhoades, 1989). 국내의 자녀 교육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아동 중심적인 교육관을 갖는 경향으로 나타나 (이원영, 1983; 이정희, 1986; 최미경, 1990),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 신념의 내용 간

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직업도 부모가 자녀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다. 즉, 어머니가 직업과 가정에서의 책임 간에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느끼는 경우는 자녀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직업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Okagaki & Divecha, 1993). 한편, 직업과 자녀 양육의 양쪽 역할에 대해 높은 참여 정도를 보이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Greenberger & Goldberg, 1989). 국내 연구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더 아동 중심적이며, 자녀의 발달이 성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자녀교육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김성옥, 1994),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양육 신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 (McGilicuddy-De Lisi, 1985). 예를 들어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지적 발달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부모 자신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믿는데 비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총명함에는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과제를 해내는데 자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Okagaki & Divecha, 1993).

부모의 자녀 양육이나 교육은 어려서부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둔 젊은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신념이나 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출산 전후의 젊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내용 중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떠한 품성을 갖추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출산 전후 여성의 부모 효능감

최근에는 양육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요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 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인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모 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Johnston & Mash, 1989),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Luster & Kain, 1987: 안지영, 2000에서 재인용). 신숙재 (1997)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부모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및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rockenberg(1981)는 양육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Belsky와 Vondra(1989)도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Frank와 그의 동료들(1986)은 실증적 연구에서 배우자가 부모로서 협조하고 돕는 관계일수록 어머니가 부모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효능감과 기술 등 내적 자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부모 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부모의 심리적 증상과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Cutrona와 Troutman(1986)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산후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에서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직접적으로 산모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통하여 산후 우울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았으며, 이를 매개로 산후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의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임신 중인 여성의 부모 효능감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편 Mondell과 Tyler(1981)는 문제 해결 상황과 놀이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였다. 우희정과 이숙(1994)은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클수록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태까지 연구되지 않았으나 당장 출산 후 양육을 직면해야 하는 임신 중 여성들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 여성들이 느끼는 부모 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효능감이 부모가 자녀와 부모행동에 대하여 미리 형성하고 있는 신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아 궁극적으로 출산 전후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부모교육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행정구역을 그 범위로 하고, 임신

초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여성 중 2002년 3월말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 집단의 추출방식은 5개 행정구역의 상주 인구비율에 따라 소집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아버지 연령	~30세	188(36.9)
	31~35	235(46.2)
	36~40	68(13.4)
	41~	13(2.6)
어머니 연령	~29세	274(53.8)
	30~34	193(37.9)
	35~39	32(6.3)
	40~	7(1.4)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1(17.9)
	전문대/대졸중퇴	92(18.1)
	대졸	318(62.5)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57(30.8)
	전문대/대졸중퇴	121(23.8)
	대졸	221(43.4)
아버지 직업	무직(주부)	5(1.0)
	전문직	81(15.9)
	관리직	75(14.7)
	사무직	119(23.4)
	판매서비스직	117(23.0)
	기술생산직	64(12.6)
	기타	41(8.1)
어머니 직업	무직(주부)	356(69.9)
	전문직	56(11.0)
	관리직	8(1.6)
	사무직	34(6.7)
	판매서비스직	33(6.5)
	기술생산직	3(0.5)
	기타	13(2.6)
가구당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미만	100(19.6)
	250-350만원 미만	248(48.7)
	350-450만원 미만	81(15.9)
	450만원 이상	41(8.1)
자녀수	0명	53(10.4)
	1명	183(36.0)
	2명	151(29.7)
	3명	32(6.3)
	4명	1(0.2)
동거가족	조부모	20(3.9)
	외조부모	1(0.2)
	사촌/외사촌	8(1.6)
	기타	1(0.2)
결혼연수	3년 미만	196(38.5)
	3-5년 미만	138(27.1)
	5-10년 미만	142(27.9)
	10년 이상	24(4.7)

단별 표본규모를 배분한 후 5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및 보건소 등에서 지역분포·여성의 취업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의 층화 표집을 하였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대부분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출산 후에는 대부분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나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산부인과 및 소아과·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접촉기관을 선정하였다. 표본규모는 총 600명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각 300명씩, 그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각 300씩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 표본규모는 대전광역시 여성 인구 중 20세 이상 45세 미만에 속하는 여성의 약 18.5%에 해당한다. 조사에 응한 총 응답자 수는 517명이었으며, 부실한 응답(응답률 80% 이하)을 제외한 최종분석 사례 수는 임부 253명, 산모 256명으로 총 509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연구절차 및 도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행동과 관련된 측면과 자녀가 실제 어떻게 성장하여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 측면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이론적 배경들과 연구도구들을 종합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기초조사 단계로 설문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심층 면접 문항을 작성한 후 약 40명 정도의 임신 초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이 면접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예비조사 단계로 1차로 작성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46명(아직 임신 중인 임부 22명,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산모 24명)의 임신 초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들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작업들을 바탕으

로 설문지를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응답자들을 면접하면서 설문지를 받아오는 형식을 띄었다.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도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양육 관련 신념

(1) 양육 영역별 중요도

부모가 생각하는 양육 영역별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부모들이 아동을 기르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행동을 30문항을 뽑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가지 요인을 얻었다. 첫째는 기본부양 요인($\alpha=.88$)으로서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가 자라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발달에 유익한 놀이감과 교구들을 제공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가정환경을 안전하게 관리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가정 분위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기본적인 아이 부양의 의무를 다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한다’ 등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는 참여와 협력 요인($\alpha=.89$)으로서 ‘바람직한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에게 지시하기보다 설명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이의 놀이나 활동에 함께 참여 한다’ 등의 7문항을 포함한다. 셋째는 훈육 관련 요인($\alpha=.84$)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따라야 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에게 벌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등의 4문항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용성 요인 ($\alpha=.80$)으로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람직한 부모는 아이의 실수와 실패에 관대하다’의 3문항을 포함한다. 이상 총 23 문항이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어진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자녀상 35가지를 열거하고 이들 각 특징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이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5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협동심 있는 사람’, ‘남을 위한 희생 및 배려를 하는 사람’ 등의 문항을 포함한 더불어 사는 능력($\alpha=.89$), ‘학습 능력이 우수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 등의 문항을 포함한 남보다 뛰어난 사람($\alpha=.88$),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등의 문항을 포함한 주관과 용기($\alpha=.91$), ‘예술 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등의 4 문항을 포함한 특별한 재능($\alpha=.82$), ‘평범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의 3문항을 포함한 평범과 성실($\alpha=.72$)의 5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2) 부모 효능감

출산 전후 여성들의 부모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 (2001)이 제작한 양육 효능감 척도를 출산 전후 여성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제외시키고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점수화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한 부모 효능감 총 32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나는 부모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등의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로서 능력에 대한 전반적 효능감 ($\alpha=.90$)과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아이가 하는 용말이 또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나는 아이의 요구와 생활리듬을 존중해 주려고 한다’ 등의 8가지 문항을 포함하는 자녀와 관계 수립에 대한 부모 효능감 ($\alpha=.84$)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놀이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환경이 어떤지 알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영양과 발달단계에 맞는 이유식을 해줄 수 있다’ 등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환경제공에 대한 부모 효능감 ($\alpha=.83$)이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나 추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처리

조사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 초산(또는 첫 임신)/경산, 산전(임부)/출산

표 2. 산모와 임부의 양육 영역별 주요 신념 및 자녀에 대한 기대 비교

	하위 요인	산모(n=256) M (SD)	임부(n=253) M (SD)	t
양육 영역별 중요도	기본 부양	3.74 (.57)	3.70 (.69)	.86 2.14* .24 1.71
	참여와 협력	3.79 (.68)	3.66 (.71)	
	훈육	2.70 (.88)	2.68 (.90)	
	수용성	3.59 (.73)	3.48 (.77)	
	더불어 사는 능력	4.01 (.61)	3.91 (.66)	
자녀에 대한 기대	남보다 뛰어난 사람	3.35 (.77)	3.38 (.80)	1.67 -.48 .55 -.77 .54
	주관과 용기	3.72 (.74)	3.69 (.74)	
	특별한 재능	3.10 (.74)	3.16 (.84)	
	평범·성실	3.49 (.78)	3.45 (.73)	

* $p<.05$

후(산모)등의 변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와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관련 신념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들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관련 신념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관련 신념을 양육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상, 즉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직 임신 중인 여성과 이미 아이를 출산한 여성 간 자녀에 대한 기대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부모 행동의 양육 영역별 중요도 부문에서는 산모와 임부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 되었는데 산모가 임부보다 참여와 협력관계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행동과 막연히 아이를 낳기에 생각하는 양육 행동의 양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다른 점수들을 비교하여 볼 때 양육 영역별 중요도 부문에서는 산모가 임부보다 기본 부양, 참여와 협력, 훈육, 수용성 등 모든 분야의 점수가 높아 산모가 임부보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녀에 대한 기대 부문에서는 자녀가 더불어 사는 능력, 주관과 용기, 평범하고 성실하게 자라 주기를 기대하는 영역에서는 산모가 임부보다 점수가 높았던 반면,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기를 바라는 영역에서는 임부의 점수가 산모보다 높은 경향이 보였다.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산모와 임부의 부모 신념 비교

	양육 영역별 중요도	출산경험 취업유무						직업								F
		초산 (n=156) M (SD)	경산 (n=353) M (SD)	t	취업 (n=147) M (SD)	비취업 (n=362) M (SD)	t	무직 (n=356) M (SD)	전문직 (n=56) M (SD)	관리직 (n=8) M (SD)	사무직 (n=34) M (SD)	판매 및 상업 (n=33) M (SD)	기술 및 생산 (n=3) M (SD)	기타 (n=13) M (SD)		
산모	기본 부양	3.77 (.57)	3.73 (.57)	.55	3.73 (.57)	3.77 (.58)	-.49	3.73 (.57)	3.85 (.54)	3.93 (.58)	3.71 (.61)	3.61 (.61)	4.56 (0)	3.96 (.57)	.87	
	참여와 협력	3.82 (.70)	3.77 (.66)	.54	3.76 (.67)	3.88 (.70)	-1.27	3.76 (.67)	3.88 (.64)	4.02 (.74)	3.83 (.68)	3.75 (.78)	5.00 (0)	4.29 (.43)	1.09	
	훈육	2.61 (.89)	2.79 (.85)	-1.6	2.45 (.83)	2.82 (.87)	3.05**	2.82 ^{AB} (.87)	2.5 ^B (.78)	2.83 ^{AB} (.68)	2.26 ^B (.92)	2.38 ^B (.83)	4.25 ^A (0)	2.33 ^B (.38)	2.69*	
	수용성	3.57 (.71)	3.61 (.75)	-.39	3.63 (.71)	3.52 (.76)	1.1	3.63 (.71)	3.58 (.75)	3.61 (.80)	3.46 (.74)	3.44 (.85)	4.67 (0)	3.22 (.19)	.79	
임부	기본 부양	3.76 (.67)	3.62 (.71)	1.57	3.68 (.70)	3.7 (.65)	-.24	3.68 (.7)	3.89 (.73)	4.22 (.16)	3.45 (.65)	3.67 (.41)	3.17 (.24)	3.61 (.52)	1.19	
	참여와 협력	3.75 (.67)	3.56 (.72)	2.19*	3.62 (.72)	3.73 (.65)	-1.14	3.62 (.72)	3.85 (.72)	4.21 (.10)	3.49 (.65)	3.83 (.57)	3.14 (.40)	3.69 (.55)	1.11	
	훈육	2.66 (.96)	2.71 (.84)	-.42	2.74 (.90)	2.52 (.85)	1.74	2.74 (.90)	2.5 (.73)	2.38 (1.94)	2.31 (.66)	2.66 (1.0)	1.63 (.18)	2.95 (1.09)	1.44	
	수용성	3.53 (.78)	3.41 (.75)	1.29	3.49 (.82)	3.43 (.65)	.56	3.49 (.82)	3.6 (.64)	4.33 (0)	3.1 (.55)	3.36 (.67)	3.00 (.94)	3.47 (.53)	1.34	

*p<.05, ** p<.01

다음은 산모와 임부 집단의 양육 신념을 사회 인구조학적 변인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이다.

1)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영역별 중요도 비교

산모와 임부 집단이 각각 느끼는 양육 영역별 중요도를 출산 경험, 취업 여부, 그 밖의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회인구조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항목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부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 시 자녀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처음 아이를 낳게 되는 임부와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임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음 아이를 가진 임부들이 참여와 협력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임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좀 더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듯 하다.

산모의 경우, 취업유무가 양육 영역별 주요 신념 중 훈육 영역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이 없는 여성들이 자녀를 부모

로서 훈육해야 한다는 점을 취업모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 차이는 직업에 따라서도 나타났는데 전문직, 사무직, 판매 및 상업을 하는 어머니들이 비취업모와 관리직 여성들에 비하여 훈육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생산직 여성이 특히 훈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수 없다. 비취업모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비교적 전문직이나 사무직, 판매 및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더욱 훈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녀에 대한 기대

산모와 임부 집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출산 경험, 취업 여부, 그 밖의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회인구조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직업에 따른 산모와 임부의 바람직한 자녀상 비교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모들은 직업에 따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다르

표 4. 직업에 따른 산모와 임부의 자녀에 대한 기대 비교 (n=509)

		직업							F	
		무직 M (SD)	전문직 M (SD)	관리직 M (SD)	사무직 M (SD)	판매 및 상업 M (SD)	기술 및 생산 M (SD)	기타 M (SD)		
산모	더불어사는 능력 남보다 뛰어남 주관과 용기 특별한 재능 평범·성실	3.98 (.59)	4.07 (.73)	4.24 (.50)	4.07 (.61)	3.94 (.68)	4.71 (0)	4.38 (.54)	0.73 0.61 0.64 0.75 1.28	
		3.36 (.78)	3.33 (.73)	3.22 (.44)	3.28 (.68)	3.27 (.85)	4.33 (0)	3.89 (.96)		
		3.71 (.73)	3.73 (.77)	3.58 (.77)	3.68 (.68)	3.83 (.90)	5 (0)	3.83 (.29)		
		3.12 (.73)	3.13 (.69)	2.58 (.54)	3.23 (.77)	2.96 (.92)	3 (0)	3.25 (.75)		
		3.48 (.76)	3.32 (.77)	3.94 (.57)	3.46 (.73)	3.56 (.88)	5 (0)	3.78 (.69)		
		3.9 (.68)	4 (.55)	4.64 (.51)	4.08 (.64)	3.81 (.64)	3.43 (1.01)	3.64 (.63)		1.19 3.29* * 1.44 1.28 1.17
		3.4 (.78)	3.6 (.74)	4.33 (0)	2.78 (.89)	3.3 (.59)	2.25 (.12)	3.43 (.56)		
3.67 (.75)	3.88 (.78)	4.25 (.12)	3.4 (.56)	3.68 (.67)	2.92 (.82)	3.47 (.6)				
3.14 (.88)	3.4 (.68)	3.25 (.35)	2.93 (.86)	3.23 (.79)	2 (0)	3.23 (.49)				
3.45 (.75)	3.63 (.72)	3 (.94)	3.21 (.58)	3.33 (.49)	2.67 (.47)	3.43 (.63)				

** p<.01

표 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산모와 임부의 부모 효능감 비교

	출산영양			취업유무			소득						학력			직업								
	조산	경산	t	취업	비취업	t	150 미만	150-250 미만	250-300 미만	350 이상	F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F	무직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 및 영업	기술 및 생산	기타	F	
신 모	전반적	2.59 (.53)	2.64 (.51)	-.73	2.59 (.51)	2.69 (.54)	-1.35 (.55)	2.6 (.55)	2.6 (.51)	2.62 (.48)	2.87 (.6)	1.6 (.58)	2.52 (.48)	2.59 (.47)	2.71 (.47)	3.56* (.51)	2.59 (.51)	2.81 (.54)	2.57 (.77)	2.49 (.35)	2.76 (.62)	2.8 (0)	2.37 (.35)	1.31
	자녀와 관계수립	3.05 (.44)	3.04 (.44)	.35	3.00 (.42)	3.16 (.46)	-2.65* *	3.15 (.42)	3.00 (.45)	2.98 (.41)	3.28 (.48)	3.46* (.46)	3.00 (.46)	2.95 (.41)	3.13 (.43)	4.02* (.42)	3 (.42)	3.31 (.41)	3.04 (.74)	2.97 (.46)	3.19 (.43)	3 (0)	3 (13)	2.51*
임 부	전반적	2.69 (.52)	2.67 (.49)	.32	2.67 (.51)	2.67 (.50)	.02 (.55)	2.6 (.51)	2.6 (.48)	2.87 (.6)	1.6 (.59)	2.53 (.59)	2.68 (.51)	2.75 (.43)	4.07* (.51)	2.67 (.51)	2.8 (.42)	3.05 (.21)	2.39 (.51)	2.73 (.42)	2.05 (.21)	2.75 (.62)	1.87	
	자녀와 관계수립	3.08 (.43)	2.98 (.49)	1.81	2.99 (.47)	3.12 (.44)	-1.88 (.42)	3.15 (.42)	3.00 (.45)	2.98 (.41)	3.28 (.48)	3.46* (.45)	2.93 (.52)	3.03 (.43)	3.09 (.43)	2.46 (.47)	2.99 (.47)	3.24 (.34)	3.13 (.53)	3.08 (.43)	3 (.41)	3.06 (.27)	2.96 (.68)	1.24
	관영계급	2.71 (.59)	2.73 (.53)	-.31	2.72 (.56)	2.69 (.59)	.41 (.50)	2.75 (.50)	2.69 (.52)	2.72 (.59)	3.08 (.65)	3.02* (.60)	2.6 (.59)	2.66 (.59)	2.79 (.47)	2.71 (.56)	2.72 (.56)	2.76 (.63)	3.3 (.42)	2.54 (.59)	2.73 (.53)	2.3 (.14)	2.62 (.58)	0.87

*p<.05 ; **p<.01

지 않았으나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임부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기대, 특히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길 바라는 부문에 있어서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과 기술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은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게 자라는데 대한 기대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관리직 어머니들이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길 바라는 기대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2. 출산 전후 여성의 부모 효능감

출산 전후 여성의 부모 효능감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산모와 임부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산모와 임부 집단의 부모 효능감을 출산 경험, 취업 여부, 그 밖의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임부의 경우에는 부모 효능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 변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신한

여성들은 전반적인 부모역할을 하는데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변인에서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임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양육 효능감이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 수립에 대한 효능감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효능감은 처음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보다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효능감을 보여주었다.

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관련 신념과 부모 효능감

출산 전후 여성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 관련 신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부모 효능감과 양육 신념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모 효능감과 양육 신념간의 상관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모 효능감과 양육 신념 간 상관관계

	기본 부양	참여와 협력	훈육	수용성	더불어 사는 능력	남보다 뛰어남	주관과 용기	특별한 재능	평범·성실	전반적 효능감	관계 수립	환경 제공
기본부양	1											
참여와협력	.70***	.1										
훈육	.35***	.24***	1									
수용성	.49***	.66***	.40***	1								
더불어사는능력	.47***	.46***	.20**	.42***	1							
남보다뛰어남	.34***	.26***	.48***	.28***	.34***	1						
주관과용기	.48***	.38***	.26***	.32***	.53***	.58***	1					
특별한재능	.26***	.18**	.35***	.24***	.34***	.56***	.43***	1				
평범·성실	.41***	.45***	.35***	.33***	.47***	.54***	.64***	.42***	1			
전반적효능감	.18**	.21***	.25***	.30***	.11	.20**	.17**	.24***	.10	1		
관계수립	.43***	.48***	.12*	.35***	.33***	.16**	.27***	.14*	.21***	.62***	1	
환경제공	.29***	.33***	.19**	.33***	.15*	.17**	.19**	.19**	.18**	.59***	.64***	1

*p<.05**p<.01***p<.0001

부모 효능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양육 신념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부모 효능감 전체 점수는 출산 전후 여성들이 양육 영역 중 기본 부양, 참여와 협력, 수용성 등을 강조할수록 그리고 자녀가 주관과 용기, 특별한 재능을 갖기를 기대할수록 부모 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부모 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부모들이 자녀가 주관과 용기, 특별한 재능이 있도록 자라기를 바라고 자녀 양육시 참여와 협력, 수용성을 중요시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수립에 관한 효능감은 자녀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기를 기대하고 기본부양과 자녀 양육에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할수록 그리고 훈육에 대한 강조는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높은 신념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 수립도 완만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특별한 재능이 많기를 기대할수록, 또 기본 부양과 수용성을 강조할수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을 사주는 등

환경 제공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부모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프로그램 및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 출산 전후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또한 자신이 부모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부모 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초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여성 509명 (임부 253명, 산모 2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모와 임부들이 느끼는 부모 효능감에서

<표 7> 양육 관련 신념과 부모 효능감의 회귀 분석 결과 (n=496)

	변 인	전 제		전반적 효능감		관계 수립		환경 제공	
		b	β	b	β	b	β	b	β
양육 영역별 중요도	기본 부양	.09	.13*	.	.	.14	.20***	.20	.22***
	참여와 협력	.12	.18**	.09	.11*	.19	.29***	.	.
	훈육	-.05	-.10**	.	.
	수용성	.10	.17**	.13	.18***	.	.	.17	.22***
자녀에 대한 기대	더불어 사는 능력11	.15***	.	.
	주관과 용기	.07	.11*	.11	.15**
	특별한 재능	.06	.11*	.11	.17***	.	.	.09	.13**
	R ²	.28		.22		.29		.21	
	df	5		4		4		3	
	F	32.45***		23.82***		51.72***		44.42***	

*p<.05, ** p<.01 *** p<.001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 신념에 있어서는 임부들이 특히 초산인 경우 산모들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아이를 낳은 산모에 비해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임부들이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출중하기를 바라는 등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산모들은 좀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다른 것보다 아이가 주관과 용기를 가지고 평범하게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 효능감이 낮았고 취업 여성의 직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경향이 보였다. 이는 취업 여성들이 출산에 따른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더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 역할 수행 능력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들 (김성옥, 1994; Okagaki & Divecha, 1993; Greenberger & Goldberg, 1989) 과도 같은 결과로 출산을 전후한 취업 여성을 지원해 주는 부모 교육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한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시 참여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전반적 효능감과 환경 제공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취업 여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제안할 때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낼 수 없는 취업 여성들이 자녀 양육시 주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가 양육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부모의 효능감 간에 관계를 보면 전반적인 부모의 신념이 부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로서의 효능감 전체 점수는 출산 전후 여성들이 제시한 양육 영역의 대부분인 기본 부양, 참여와 협력, 수용성 등을 강조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부모 교육시 부모로서의 기본 부양의 책임, 부모 역할 수행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수용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양육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반적인 부모 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주관과 용기,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갖기를

기대하고 자녀와의 관계 수립에 관한 효능감은 자녀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기를 기대할수록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자녀가 특별한 재능이 많기를 기대할수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을 사주는 등 환경 제공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부모의 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분야에 관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한 선행 연구 (Luster & Kain, 1987: 안지영 2000에서 재인용)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모의 효능감을 높여주어 자신있는 부모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자녀의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출산전후 부모들에 관한 체계적 정보들은 첫째, 지역사회 내의 출산전후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의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둘째, 예비 부모 후보로서 장차 가정을 이루고 다음세대의 육성을 담당할 인력들인 남녀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의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출산전후 여성들의 양육 신념과 부모 효능감에 관한 정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녀 출산 전후의 모든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양육 관련 신념, 양육 효능감, 산모, 임부, 자녀에 대한 기대

참고 문헌

김경혜 (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김성옥 (1994).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 ·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 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 ·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최미경 (1990). 부모 교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lsky, J,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pp. 153-2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uvall,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 Frank, S., Hole, C. 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 - 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2-35.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Luster, T., & Rhoades, K. (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 - beliefs and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73-78.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gal, N.,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71-2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venson. H. Q., Chen, c. M., & Uttal, D, H, (1990). Beliefs and achievement: A study of Black, White, and Hispan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508-52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2003. 5. 15 접수; 2003. 8.14 채택)